

본문에서 발견하기

-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 우리는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일 이외에 또 다른 일 두가지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까?

- 이러한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1-3)

-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기 이전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바울이 사용한 가장 강한 표현은 바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곧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어느 정도의 영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바울은 인간이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허물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실수 몇 가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데 있습니다.
-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첫째는 세상의 풍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분위기, 가치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 가게 됩니다. 셋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 있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이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